

#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 6·25전쟁 납북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가며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53-01

납북자이야기책

글 한수프  
그림 이탁근

#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동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면  
모서리에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남북자이야기책

#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납북자이야기책

#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글 한수프 | 그림 이탁근



## 만든 사람들

총괄 김영산  
기획 윤소라, 최제정  
글 한수프  
그림 이탁근  
감수 국립통일교육원 엄현숙

발행일 2022년 11월 29일  
발행처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1080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T.031-930-6000, F.031-930-6097

홈페이지 [www.abductions625.go.kr](http://www.abductions625.go.kr)

디자인·제작 아이디어스폰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53-01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그림과 사진·글은 무단복제, 수정, 삭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방은 뭐가로 가득해.

곳곳에 오래된 책이며 편지, 노트가 한가득이야.

미주는 코를 킁킁거리려. 종이에서 쿼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할머니는 왜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않으실까.

‘할머니가 시장에 가신 동안 내가 정리해 놓아야지.’

종류별로 책장에 꽂아 놓는데 노트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노트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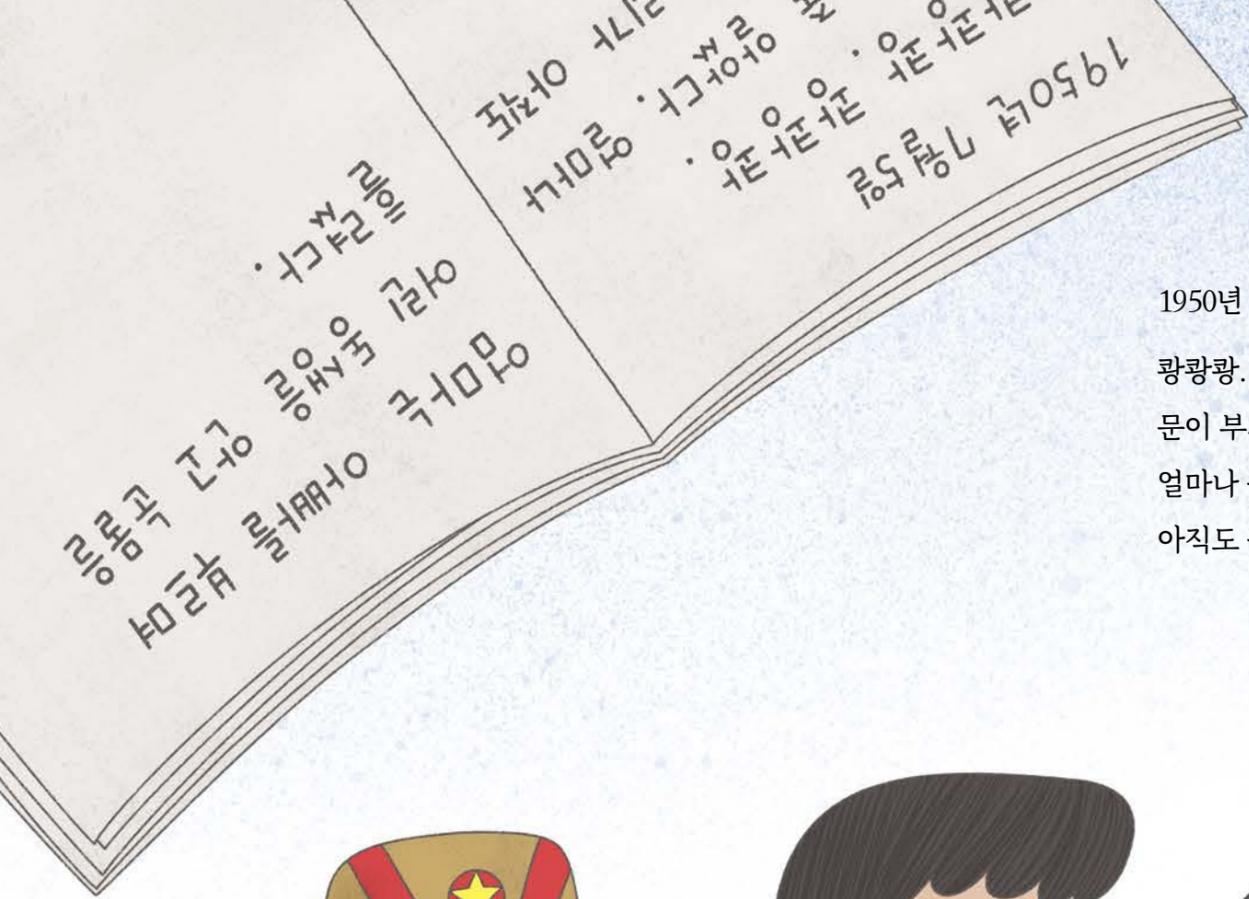
노트 앞면에 쓰진 삐뚤빼뚤한 글씨가 아주 귀여워.

할머니의 이름이 써져있어.

“이옥희”

미주는 자기도 모르게 일기장을 넘겼어. 할머니의 어린 시절 속으로 쏙 들어갔지.





1950년 7월 5일

황량황. 황량황.

문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얼마나 놀랐는지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들리는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소리를 들었을 때도,  
총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다 알고 왔으니 어서 문 열어!”

아빠는 놀란 나와 엄마를 진정시키고 문 밖으로 나갔다.

북한군은 조사할 게 있다며 아빠를 끌고 갔다.

아빠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올게.” 했다.

엄마는 아빠를 부르며 어린 동생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엄마가 더 슬퍼할까봐 꺾꾹 참았다.

아빠가 괜찮다고 했으니,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

난 하나도 슬프지 않다.



1950년 7월 19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빠를 기다리는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간다.

방에서, 마루에서, 마당에서, 길에서, 하루종일 아빠를 기다린다.

아빠가 끌려간 쪽으로 고개를 쪽 빼고서. 나는 아빠의 ‘금방 올게’란 말을 계속 생각했다.

‘금방’이란 때는 이미 지난 것 같다.

‘아빠. 지금와도 금방 온 걸로 쳐 줄게. 그러니 제발 오기만 해 줘.’

전쟁을 피해 모두 피난을 떠났지만, 우리는 아빠를 기다려야 한다.

엄마는 아빠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녔다.

난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상상했다.

하지만 엄마는 늘 혼자 돌아왔다. 그럴때면 엄마의 눈 밑에는 검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아빠의 금방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뿐이야.’

**아빠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도 슬프지 않아.’**

1950년 8월 30일

“옥희야 너희 아빠가 납북됐대. 북한으로 끌려갔다는데..어디서 찾아야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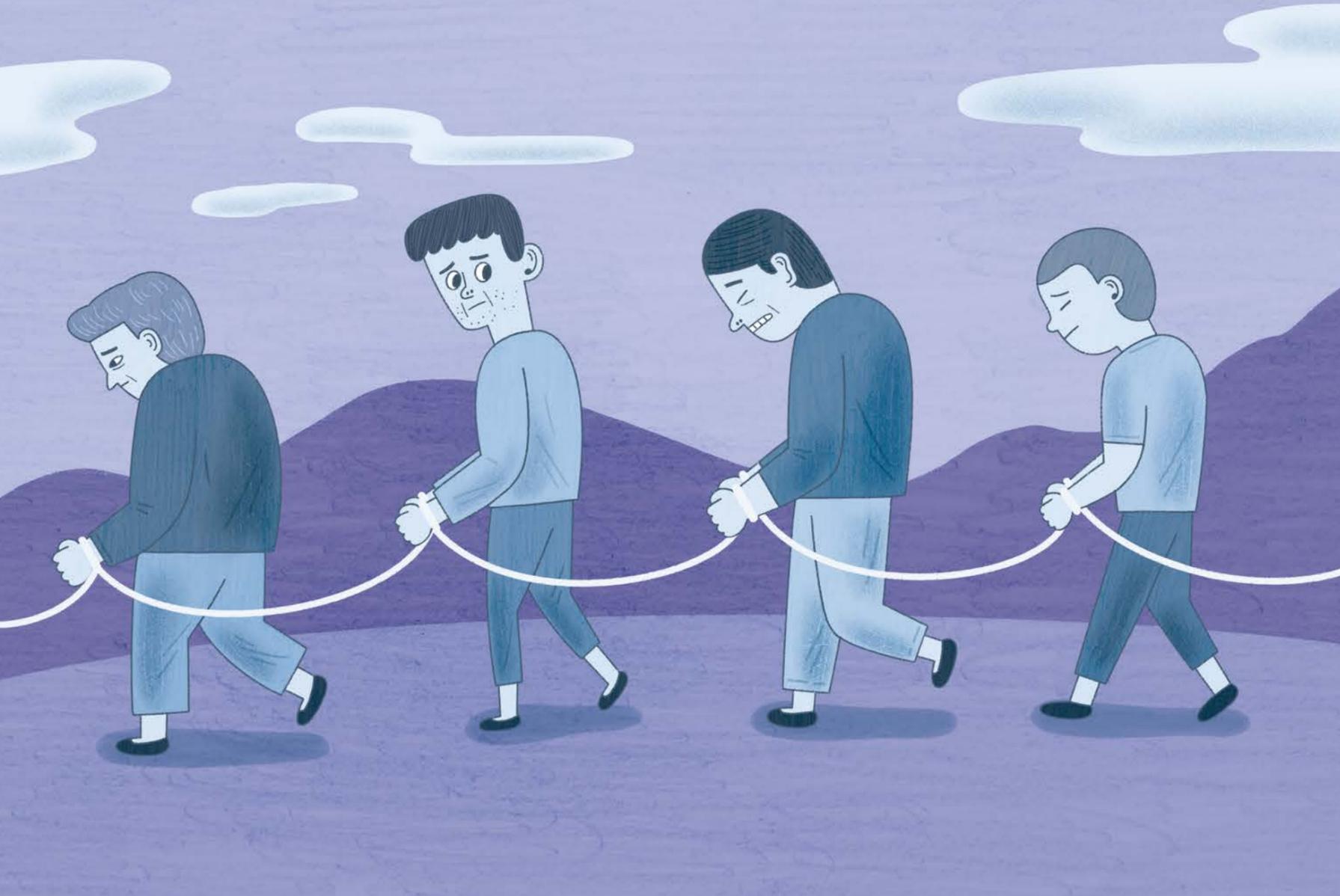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납북. 처음 듣는 단어지만 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무서운 마음에 나도 엄마를 안고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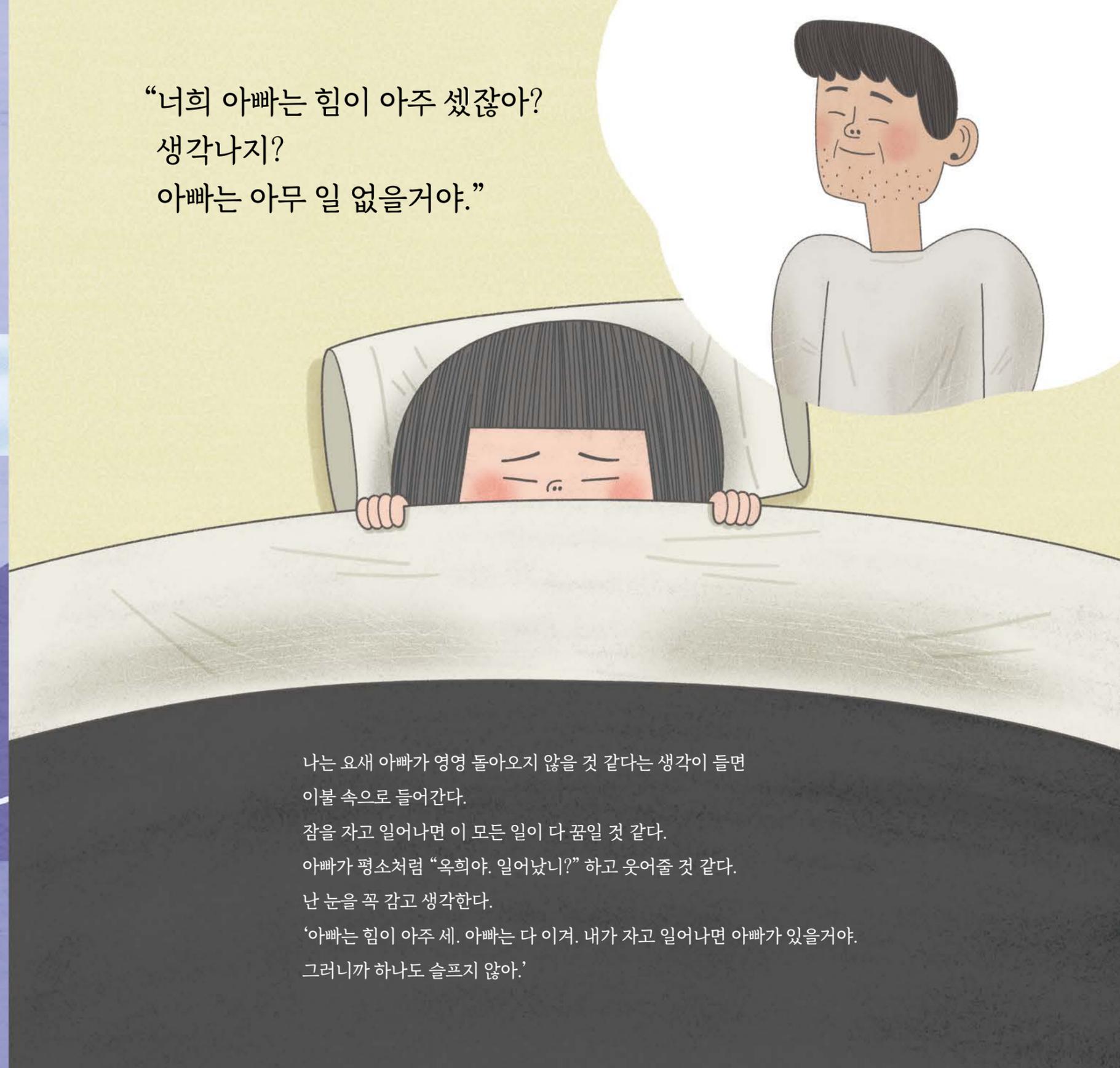
엄마 등에 업힌 동생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도 으앙. 하고 눈물을 터트렸다.

엄마는 금세 눈물을 훔치고는 그래도 잘 있을 거라고, 가족이 있는데 먼저 죽진 않았을 거라고,

전쟁만 끝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너희 아빠는 힘이 아주 셋잖아?  
생각나지?  
아빠는 아무 일 없을거야.”



나는 요새 아빠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일이 다 꿈일 것 같다.

아빠가 평소처럼 “옥희야. 일어났니?” 하고 웃어줄 것 같다.

난 눈을 꼭 감고 생각한다.

‘아빠는 힘이 아주 세. 아빠는 다 이겨. 내가 자고 일어나면 아빠가 있을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슬프지 않아.’



1950년 10월 20일

북한군이 물러가고 다시 국군이 서울로 돌아왔다.  
각 집마다 북한군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해 갔다.  
우린 아빠가 납북되었다고 말했다.  
곧 아빠가 돌아올 것 같은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하지만 전쟁은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엄마는 요새 시장에서 국밥을 파신다.  
나는 엄마 옆에서 동생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주었다.

동생은 아빠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으니까...  
내 이야기속에서 아빠는 어느 날은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가,  
어느 날은 힘센 영웅이 된다.  
아빠는 내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아빠. 나 아빠를 하나도 잊지 않았어.  
아빠의 딸인 게 자랑스러워.  
난 하나도 슬프지 않아.’

1953년 7월 30일

드디어 전쟁이 멈추었다. 이제 납북된 아버지를 만날 일만 남았다.

이웃 어른들이 우릴 보고 말했다.

“옥희는 좋겠다.  
이제 곧 아빠 만나겠네!”



“네.”

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배시시 웃었다.

곧 돌아오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 동안 고생한 것이  
하나도 슬프지 않다.

1954년 3월 2일

납북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아빠도 돌아오지 못했다.

북한은 납북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아빠가 너무나 그립다.

친구들이 자기 아빠를 보고 “아빠!” 하며 달려갈 때,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본다.

친구 아빠가 뒤로 돌아 팔을 벌릴 때, 친구가 아빠의 품에 안길 때, 더이상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그러고는 우리 아빠에게 말한다.

**‘아빠, 나 아빠가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있을게.’**



아빠가 당장이라도 와서 날 꼭 껴안고 칭찬해 줄 것만 같다.

**“우리 옥희가 아빠 없는 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빠가 그거 다 알아.”** 하고 말이다.

그래서 난 눈물을 꺽꺽 삼킨다. 아빠는 다 아니까. 아빠가 다 알고 있으니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다.



며칠 전 버스정류장에서도 그랬다.  
아빠와 뒷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헐레벌떡 달려가 얼굴을 확인했는데,

**아빠가 아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다.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릴 것 같다.

하지만 엄마가 슬퍼할까 봐 울 수가 없다.

그럴 때면 슬픈 마음을 꺾꺾 눌러 작게 만들어

글자 안에 넣어서 이렇게 일기를 쓴다.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자주 보는 건 내가 아직 아빠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거다.  
아빠가 오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 난 하나도 슬프지 않다.’



1954년 7월 8일

나는 자주 착각을 한다.

어제는 시장 골목 이발소를 지나는데

아빠가 그 안에서 이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차마 들어가 보진 못하고 이발소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을 보니 아빠가 아니다.



1962년 3월 2일

그동안 북한에 납북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납북자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엄마는 우리를 키우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신다. 더 이상 슬퍼할 새가 없다.

나는 엄마에게 하루 중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재미있는 일이 없었다면 가짜로 지어내서라도 들려준다.

“엄마, 오늘 학교에 가는데 영철이가 신발을 짹짹으로 신고 가지 뭐야!

한 짹은 슬리퍼를, 한 짹은 운동화를 신고 늦을까봐 막 달려가는 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하하하.”

엄마는 살짝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를 보면 안심이 된다.

나는 엄마가 옆에 있어서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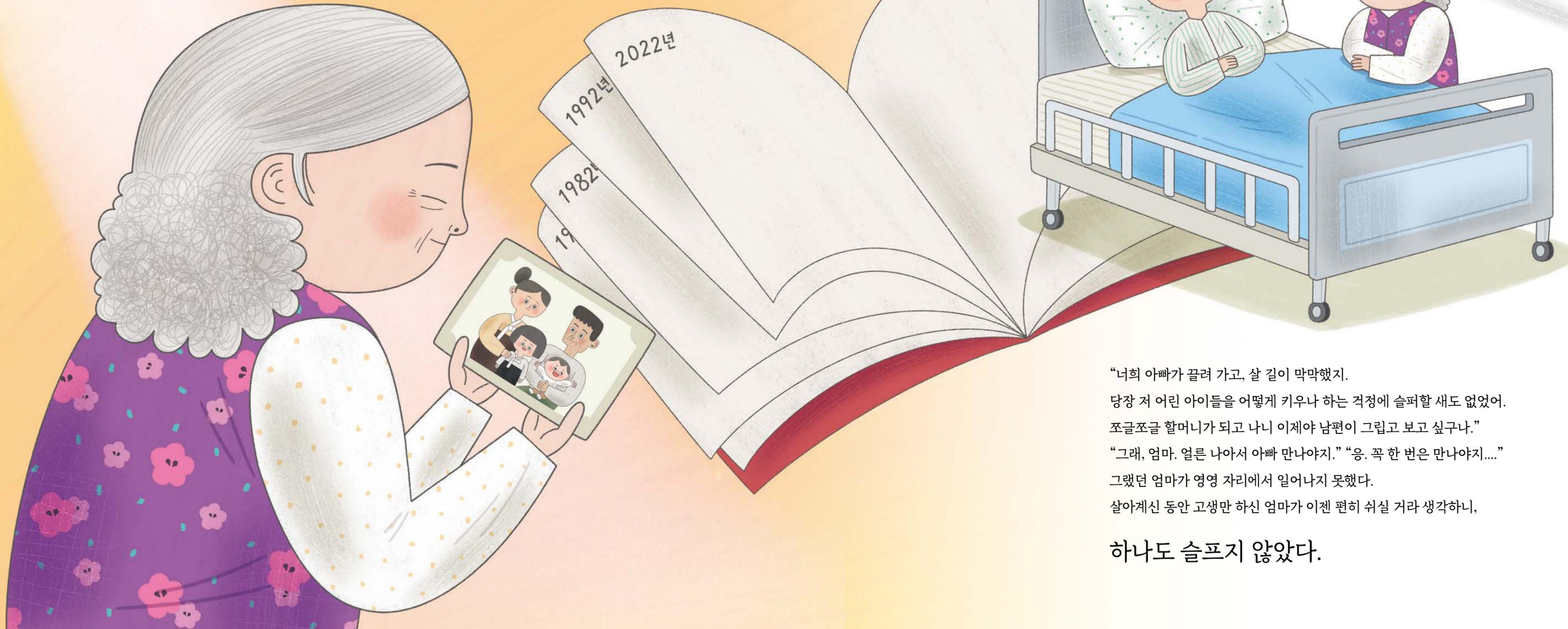


2017년 5월 5일

나는 오늘도 빛 바랜 가족 사진을 보며 기도한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해 주세요.’하고.

오늘따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생각난다.



“너희 아빠가 끌려 가고, 살 길이 막막했지.

당장 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하는 걱정에 슬퍼할 새도 없었어.  
쪼글쪼글 할머니가 되고 나니 이제야 남편이 그리고 보고 싶구나.”

“그래, 엄마. 얼른 나아서 아빠 만나야지.” “응. 꼭 한 번은 만나야지....”

그랬던 엄마가 영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살아계신 동안 고생만 하신 엄마가 이젠 편히 쉬실 거라 생각하니,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미주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았어.

온통 슬프지 않다고 적혀있는 할머니의 일기가 왜 이렇게 슬픈 걸까.

미주는 일기장 속 글자들이 할머니 대신 우는 것 같다고 생각해.

일기장 속 할머니는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야.

미주는 일기장 속에서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어린 시절의 할머니를 만났어.

미주는 어린 할머니, 옥희를 위로해 주고 싶어.

“얼마나 슬펐어? 얼마나 힘들었어?”

어린 옥희는 미주의 손을 잡고 가만히 웃어.

“힘들긴. 내 슬픔을 알아주는 미주가 있으니깐 하나도 슬프지 않지.”





미주는 문이 삐그덕 열리는 것도 몰랐어.

옥희가 미주를 부를 때 까지 말이야.

“미주야.”

“어, 할머니!”

옥희는 손녀 미주가 자신의 일기를 읽고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미주도 그랬어. 할머니에게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라는 한 마디만 겨우 건넸지.

옥희는 말했어. “아빠가 돌아오시면 칭찬받을 생각에 뭐든 열심히 했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꼭 아빠가 흐뭇하게 날 보고 있는 것 같았지.

**아빠 덕에 이만큼이라도 산 거야. 아빠 덕에...**

옥희는 일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도 슬프지 않다는 표정을 지어보였어.

미주는 옥희의 손을 잡고 말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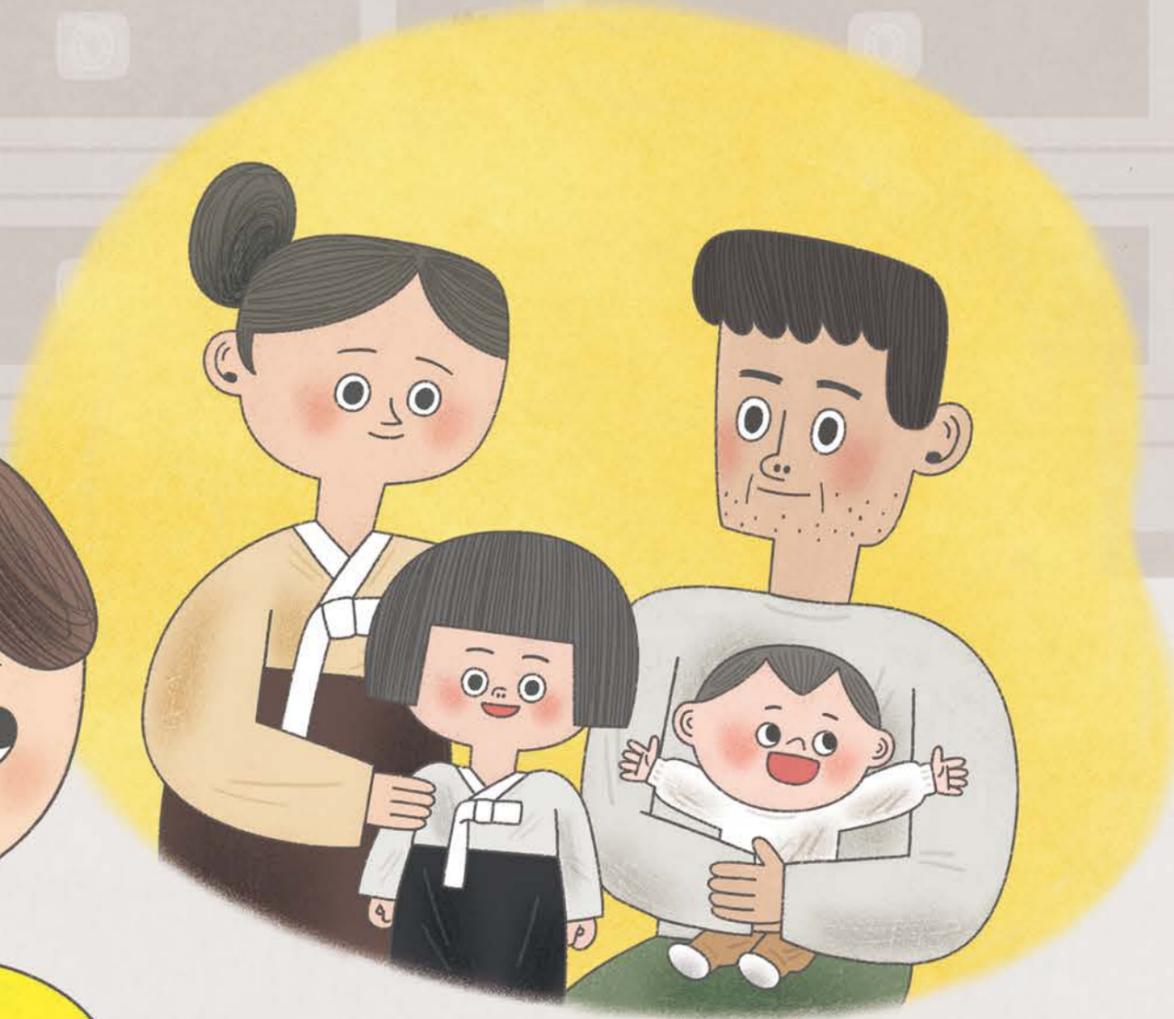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의 아빠를 저도 기억할게요. 내내 아빠를 기다렸던 할머니의 삶도요.”

“네가 우리 아빠를 기억하겠다고?”

“네, 할머니.”

옥희는 ‘아’하는 감탄사를 뱉고 천천히 말했어.

“네 증조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



“할머니,  
오늘 이야기도 일기에 적어주세요.  
이젠 진짜 진짜 하나도  
슬프지 않다는  
말도 꼭 넣어서요.”  
“그럼, 그럼.”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흘렀어. 어린아이였던 옥희가 할머니가 되었지.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잊혀지지 않지. 잊혀져선 안되지.  
납북된 옥희의 아빠는 이제 미주의 기억 속에서도 살거야.  
옥희는 미주에게 아빠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만둣국이었어. 미주 너처럼.”  
“어! 제 입맛은 증조할아버지를 닮았나봐요!”  
옥희는 웃으며 마음 속으로 말해.



‘아빠. 제 손녀가 아빠를 기억하겠대요.  
전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

# 6·25전쟁 납북자 이야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가며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 6·25전쟁 납북자는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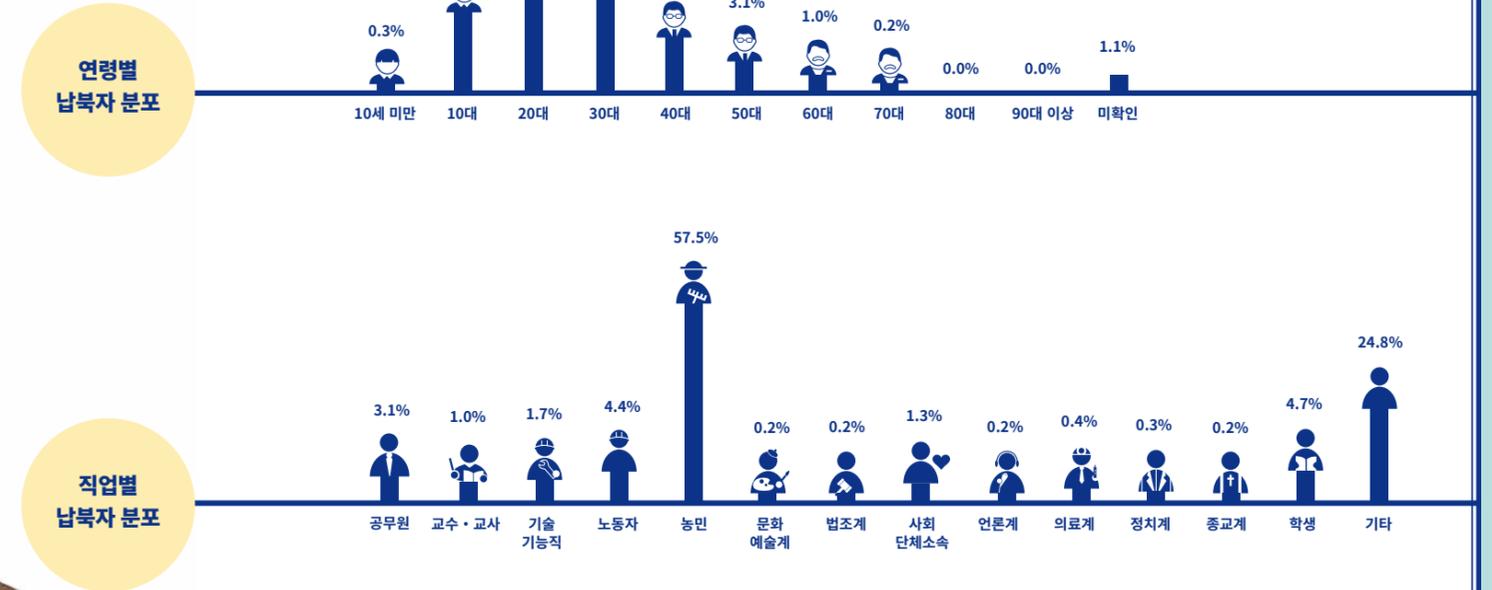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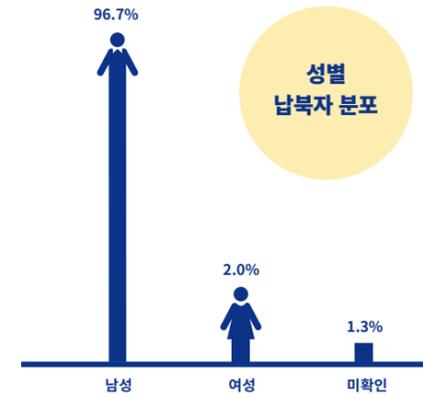
끌려갈 남<sup>남</sup>, 북<sup>북</sup> 북<sup>북</sup>.  
납북은 “북으로 끌려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한에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 6·25전쟁 중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신 분들을 납북자라고 해요.

<귀한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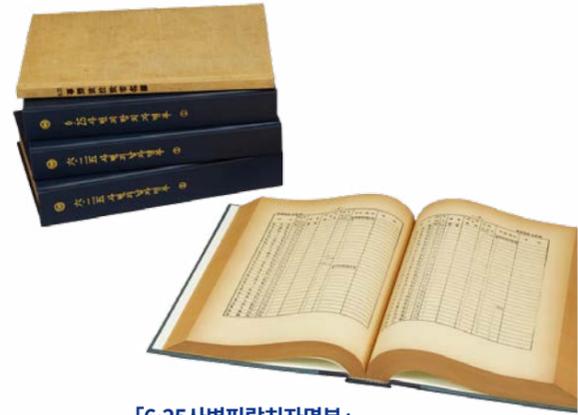
## 어떤 사람들이 납북이 되었나요?

전쟁 전, 남과 북은 이미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부를 만들고 대립하던 상황이었어요.  
북한은 성공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위해 지식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사회 저명인사 등 인재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 의사, 교수, 법조인, 기술자, 예술가 같은 사람들을 납북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력도 필요했지요.  
그래서 젊은 청·장년층 남자들이 특히 더 많이 납북되었어요.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북되었나요?

납북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납북자 명부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와 납북자 가족들이 만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에서도 납북자 명부를 만들었지요. 이 명부들을 모두 종합해 본 결과 무려, 10만 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납북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6·25사변피랍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



## 납북된 사람들의 소식은 알 수 없나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1954년 3월 1일부터 남과 북에서 각각 하루에 100명씩 돌려보내기로 약속을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납북자 가족들은 기대와 희망 속에 그 날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1954년 3월 1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남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후로 현재까지 남한으로 돌아온 납북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안부탐지조회서」  
대한적십자사, 1956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요.

하지만 납북자 명부와 가족들의 증언, 여러 가지 기록들은 납북사건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라는 것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역사.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났다고 해도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고,

**국민인 납북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일거예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  
**6·25전쟁 납북자**

나는 오늘도 빛 바랜 가족 사진을 보며 기도한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해 주세요.’